

삶을 위한 성경 강해: 요한계시록(7)



이우제 (백석대학교 교수)

백석대학교 실천신학 대학원 원장이자 실천신학(설교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총신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M.Div)를 하고 미국 칼빈신학대학원에서 신학 석사(Th. M)과 남아공 스텔렌보쉬 대학교에서 신학박사(Th.D)학위를 받았다. 하나님 나라의 대안적 음성을 밝히는 설교를 꿈꾸는 설교학자이자 설교자이다. 저서는 「테마가 있는 설교」(대서)와 「구속사적 관점으로 본 내려티브 설교 형식 계발」(공저, 대서)가 있다.

두아디라에 남아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집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계 2:24-25)

두아디라 교회는 사이비 혹은 신비주의 신앙에 넘어간 교회이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적지 않은 신자들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 교회 안에 잠입해 들어온 제2의 이세벨로 불리는 여인의 미혹에 넘어가 잘못된 종교적인 열심 혹은 영적 체험을 추구해 가게 된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불건전한 신비주의 신앙 혹은 우상 숭배와 영적 음행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어쩌면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의 핵심은 일차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처럼 되지 말라고 집약할 수 있을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처럼, 거짓된 가

르침에 미혹되어 우상숭배와 음행의 길로 나아가기를 중단하고, 건전한 신앙의 자리로 굳게 지켜나가는 것이다. 이런 미혹에서부터 이기는 자가 되라는 메시지이다. 일곱 교회를 향한 교훈을 교차대조(chiasm 키아즘)의 방식으로 보면 이 점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a.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2:4)

b. 서머나 교회:

칭찬받는 교회, 자칭 유대인의 비방(2:9)

c. 버가모 교회:

안디바의 죽음(2:13), 죽었으나 살았음

d. 두아디라 교회:

거짓 선지자, 우상의 제물, 행음

c' 사데 교회:

살았으나 죽었다 (3:1)

b'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받는 교회, 자칭 유대인의 굴복(3:9)

a' 라오디게아 교회: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3:19)

이러한 교차대조 구조 안에서 제일로 강조되는 교훈은 d 섹션에 해당하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메시지이다. 거짓 선지자로 칭해지는 이세벨 같은 존재로 우상 숭배를 하고 영적인 변절을 하게 되는 길이가속화된 결정적인 이유로 신비주의 신앙에 매료됨을 꼽을 수 있다. 신비한 현상이거나 체험을 추구하게 되면서 점차 기존의 신앙이 시시해 보이고 보다 자극적이고 감각적인 것들을 붙들게 되는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신비주의 신앙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이다. 사탄의 깊은 것을 추구했다는 24절의 말씀

이 그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두아디라교회를 보면서 나에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기는 질문이 있다. 그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어떤 교회이기에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가?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인가?

궁금증 (1): 도대체 어떤 교회이기에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참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충격이 되는 부분은 두아디라 교회가 잘못된 신비주의 신앙에 빠질 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데 있다.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은 저급한 신앙, 값싼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이비 혹은 신비주의 신앙에 깊이 빠진 것이다. 신비주의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두아디라 교회가 거기에 빠진 것이 놀라움이다.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도 멋진 교회이다. 소위 말해서 '모범생 교회'이다. 장안에 좋은 소문이 난 교회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하고 신앙의 수준이 매우 높은 교회이다. 그런 교회가 신비주의 신앙에 넘어가고 만 것이다. 두아디라 교회가 얼마나 괜찮은 (이단에 빠질 수 없는?) 교회인지 19절에 잘 나타나 있다. 주님은 그 교회를 향하여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신다고 하신다.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섬기고 인내의 신앙을 가진 교회이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섬기되, 내적으로도 충만한 교회이다. 그다음 구절을 보자. "네 나중 행위가 처음 행위보다 좋다"고 하신다. 점점 더 진보해 가는 교회라는 뜻이다. 용두사미 형태의 신앙인들이 아니다. 배운 대로 실천하는 신앙의 높은 수준을 추구해 가는

교회라는 말이다. 주님의 사업에 힘쓰되 공명심이 나 이름을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고, 믿음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섬기는 교회이다. 술한 비바람 속에서도 견디고 서 있는 나무들같이 그렇게 인내의 미덕을 가진 교회이다. 그러면서 계속 눈부시게 하나님 앞에서 성장해 간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향하여 계속 발전해 가는 그런 교회이다.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칭찬의 정도가 거의 완벽에 가깝다. 두아디라 교회는 첫 사랑을 잃은 에베소 교회와는 다른 교회이다. doing과 being을 함께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또한 두아디라 교회는 순교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켰지만, 나중에는 유혹을 당하여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 버가도 교회와 분명히 달랐다. 인내의 미덕을 가지고 있는 교회이다. 그런 교회가 사이비 종파의 불건전한 신비주의 신앙에 깊이 빠지게 된 것이다. 이렇게 두아디라 교회는 이단에 빠지는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가 아니다. 전혀 그런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흔히 이단에 빠진 사람들에게 따라붙는 단어는 기존 교회에 부적응자, 미숙한 인격을 가진 자, 초보적인 신앙인, 환난의 비바람 속에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빈약한 자, 조변석개로 변덕스러운 신자와 어울릴 것이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나 멀다. 그래서 더욱더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수준,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 가는 영적 진보를 드러내는 교회가 신비주의 신앙에 빠져서 어찌하면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고, 매우 심각한 책망을 듣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역사상 가장 본이 되는 모델로 쓰일 수 있는 교회인데 너무도 아까운 교회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

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주님을 향한 열정과 성장을 향한 진지한 몸부림과 추구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열정과 수준이 있는데도 신비주의에 넘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니 열정과 수준이 있기에 넘어가게 되는지도 모른다. 왜일까? 목마름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서 있는 신앙에 대한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깊은 곳으로 찾아가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는 기본적으로 귀한 것이다. 너무도 칭찬할 만한 모습이다.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오직 신음하며 추구하는 자만을 인정한다.”고 할 정도로 신앙의 본질은 추구에 있는 것이다. 기독교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선한 열심과 간절한 추구에는 언제나 유혹이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한다. 미혹의 세력이 따라다닌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아마도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교훈일 것이다. 신앙생활에서 결코 방심이 없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스티븐 코비의 말처럼, 시간 관리 보다 우선적인 것은 방향 관리인 것이다. 선 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늘 우리들의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궁금증 (2):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과정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어떤 교회였기에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이단에 빠졌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한 가지 이어지는 궁금증은 ‘어떻게 그럴 수 있나?’이다. 신비주의 신앙과는 거리가 먼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게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무엇 때문에 이토록 고상한 신앙을 소유한 교회가 여기에 넘어지게 되는 것일까?

이단에 빠져가는 과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두아디라 교회가 처한 상황과 그분의 책망의 말씀이다. 먼저 20절의 말씀을 보면,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이 교회 안에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녀가 이 교회의 성도를 사단의 깊은 곳으로 초대 한 것이다. 주님과 관계 안에 깊은 곳으로 초대 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사단의 깊은 곳으로 성도들을 인도해 가게 된 것이다. 처음부터 사단의 깊은 곳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 노골적인 전략에 성도들이 미혹될 리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단의 깊은 곳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갔을까? 본문에는 그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다른 구절의 도움을 받아서 답을 찾아야 한다. 어떻게 사단의 깊은 곳으로 성도들이 끌려 갈까? 이를 위해서 거짓 선지자의 특징을 밝히는 게 13장 11-14절로 가야 한다. 이세벨은 거짓 선지자들의 모습과 흡사하다. 거짓 선지자의 모습에서 이세벨이 교회를 유혹하는 과정을 삼단계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단계는 거짓 선지자는 ‘어린양같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이다.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다. 무엇인가를 간절히 열망하며 추구하는 사람들이기에 더욱더 허점이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을 패러디해서 들어온 것이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들어온 이세벨의 모습인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이 속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용처럼 말하는 것이다(13:11). 어린양을 패러디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본질은 용에 속한 자라는 것이다. 겉모습은 어린양이지만 말은 용의 말이다. 사단의 음성이다. 이세벨은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용처럼 말을 해서 성도를 미혹하는 것이다. 무엇이라고 말했을까?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모습

으로 두아디라 교회의 성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을 제시했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두아디라 교회의 배경을 통해 설명해 보자. 두아디라는 팍스 로마나 (Pax Romana)를 지키는 중요한 군사도시였다가, 점차로 상업 도시로 자리 매김을 하게 된 곳이다. 특히 염색, 가죽, 의복 같은 것이 발달한 곳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각종 사업 조합들이 있었다. 그것이 바로 ‘길드’라는 것이다.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길드에 가입하게 된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길드마다 수호신이 있었기에 길드에 가입한다는 것은 곧 그 수호신의 수하에 들어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시가 되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들은 사업의 번창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자기들이 섬기는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혼이 나가도록 잔치를 즐기고, 이때 여인들을 불러들여 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기독교 신앙에 깊이를 추구하는 신자들의 고민이 깊었을 것이 분명하다. 현실적으로 길드에 가입하지 않고는 생업을 유지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필요했다. 길드에 가입해야 하는가? 아니면 불이익을 감내하고라도 신앙의 순결을 선택해야 하는가? 이때 매력적인 모습을 한 이세벨이 등장한 것이다. 어린양의 탈을 쓰고 용처럼 속삭인다. “길드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되지 않아!” “각종 제사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심각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두아디라 교인들의 귀를 사로잡는 음성이었을 것이다. 그것도 두아디라 지역 사람들이 모두 귀하여 여기는 재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의 말하기에 더욱

더 마음이 흔들린 것이 분명하다. 어느 분의 표현처럼 그녀는 지금 진리를 양보한 관대함의 길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녀는 지금 욕망과 탐욕의 길을 당당히 걸어가고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 음성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이다. 그동안 두아디라 교인들이 가졌던 마음에 부담이나 찝찝함을 한 방에 날려 보내고, 담대하고 탐욕스러운 길로 나아가게 하는 옵션이었다. 그녀의 음성은 고뇌하던 두아디라 교회를 살리는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다가온 것이 분명했다.

셋째 단계는 능력(예언, 은사, 기적)을 행하는 것(13:13-14)이다. 여기에 거짓 선지자가 사람을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인지 소개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다. 이세벨이 그러했음이 분명하다. 예언 기도를 해주고, 다양한 은사로 대단한 카리스마를 발휘한다. 그녀가 기도해 주면 사람들이 신비한 세계에 들어가기도 하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게 되는 놀라운 이적들을 펼쳐 보였을 것이다. 이러한 능력 행함을 통하여 사람들을 신비체험의 자리로 초대하게 된다. 신비체험을 통하여 이세벨은 성도들의 장래에 대한 '거짓된 안도감'을 갖게 한다. 사람들이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신비체험을 통하여 두려움 속에서 맞이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싶은 것이다. 앞날을 내가 통제하며 살고 싶은 것이다. 이세벨 같은 거짓 선지자는 바로 이러한 대목을 파고들어 미래를 예측한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수준이 높은 신자라도 이세벨의 미혹에 집중팔구 넘어가게 된다.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세벨을 광신하게 되는 것이다. 급기야는 사단의 깊은 곳에 빠져들게 되는 지경까지 나

아가게 되는 것이다.

궁금증 (3):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인가?

앞의 두 질문보다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질문이다. 그렇다면 과연 신비주의 신앙에 빠지지 않는 길은 무엇일까? 혹은 신비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하여 25절에서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신다. 너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굳게 잡는 것으로 깊어지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성취한 것이다. 그것을 굳게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성취하신 것들이다. 그것을 굳게 붙잡는 것이다. 우리에게 없는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라는 것이다. 신앙은 생전에 듣지도 보지도 못한 새로운 사상이나 신비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이루신 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히브리 11장 1절에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라고 하신다. 무슨 뜻인가? 믿음이란 우리에게 없는 것을 목마르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은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바라보게 하신 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분 안에 있는 영생, 구원, 소망, 성령의 보증, 수 없는 위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내 뜻대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바가 어떤 난관 속에서도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것이다.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요한계시록

1장 1절 “속히 될 일”의 의미도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만 한다. 앞으로 ‘성취될 일’은 이미 ‘성취된 일’에 근거해서 보아야 한다. 예수님이 성취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핵심은 십자가 사역을 통한 구원과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그것을 이루시겠다는 것이다. 앞에 있는 일에 대한 미래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이미 주신 것을 굳게 잡으면 우리는 ‘주님이 성취하신 것으로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들(그분이 이미 주신 것)로 인하여 만족하게 된다. 그것이 근원적인 만족이 되어서 두아디라고 교회의 타락의 첫 단추가 되었던 탐욕을 이기게 된다. 주님이 이미 주신 것을 굳게 잡으면 욕망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자족하며 기뻐하며 살아가게 된다.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이세벨의 유혹이나 신비주의 신앙에 마음을 내주지 않게 되는 것이다. 신자는 주님 안에서 이미 소유하게 된 것으로 진정한 만족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될 때 탐욕으로 볼록 나온 올챙이 배 같은 삶이 아니라, 그분의 선물을 늘 향유하고, 자연을 누리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찾으며 이웃과 함께 행복한 교제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미 주신 선물들을 굳게 붙잡고, 삶의 여백을 채우며 나아가기를 바란다.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여백 메우기’라고 해도 될 것이다. 결코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사람들처럼, 두려움 속에서 내 미래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어떤 것을 환상으로 보거나 예언의 말씀으로 듣는 것을 통하여 주님을 묶어두려고 해서 안 된다. 그분을 통제하려 들지 않아야 한다. 아니 그분은 피조물

에 의해서 결코 통제받거나 통제될 수 없는 분이시다. 그분을 마음껏 조작하는 대신에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주신 것들을 붙잡고 주님의 밑그림을 따라서 남겨진 여백을 그분을 향한 신뢰와 기대로 채워나가야 한다. 그때 우리는 ‘신비주의에 빠지는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신에 ‘신비에 매료되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나의 탐욕과 미래에 대한 통제를 위하여 신비주의 신앙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그분을 통제하며 살아가는 것 대신에 그분의 통치 안에서 여백을 멋지게 채워주실 신비한 역사를 기대하며 걸어가야만 한다.

결론

신앙적인 열심과 수준에도 불구하고 신비주의 신앙에 빠진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다른 동네 이아기로 여기지 말고, 우리에게 대입해 보자. 신비주의 신앙은 주님을 간절히 추구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주님을 꼼짝 못하게 하려는 불경한 모습인 것이다. 주님을 제한하려는 행위인 것이다. 신비 신앙 대신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에 눈뜨고 깊어지는 것이다. 이미 신비로운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자리로 초대하실 것을 기대하며 신나는 모험을 즐겨야 할 것이다. 